지니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잊고 싶지가 않아서

딸이 자발적으로 교내 상담 신청을 하고 이틀 전 상담 선생님을 만나고 왔다고 한다. 상담 주제는 "어떻게 하면 동생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였고 상담 선생님은 보드게임을 하면서 가까워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한다. 가족 구성원을 이야기하면서 오빠 이야기도 했는데 선생님이 "00야, 선생님이 너희 오빠 이야기를 아는데 왜 넌 오빠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라고 물으셨고 딸은 "그냥 잊고 싶지가 않아서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이들 학기 초마다 있는 가족 소개, 가족 그리기에 큰 아이의 존재가 쏙 빠져버릴까 불안했는데 딸은 이렇게 오빠를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싶었다.

나에게도 항상 있는 일이다. 누구든지 처음 만나면 "아이 있으세요?" "아이가 몇이에요?" "아이들 몇 살이에요?" 라고 흔한 대화를 시작하고 뭐 대단히 궁금해서라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처럼 결국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기 쉽다. 하지만 이때마다 솔직히 뭐라고 답해야 하나 난감하다. 큰 아들이 너무 빨리 하늘로 떠난 것은 슬픈 일이지만 부끄럽거나 쉬쉬하며 비밀로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가볍게 가족관계를 묻는 질문에 "아이가 하늘에 있다." 와 같은 답을 해버리면 분위기를 단번에 갑분싸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 그들이 듣고 싶은 답은 이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화의 흐름은 하하호호 어머 큰애가 중3이면 지금 한창 사춘기겠네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애랑 매일 전쟁이라 미칠 지경입니다. 다 그렇게 큰다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지나가겠지요. 네네. 호호호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테니깐...

며칠 전에는 정말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 친구 둘을 만났다. 한 친구는 한국 들어와서 한번 만나고 한동안 연락도 잘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이다. 그동안 못다 한 수다가 한바탕 벌어졌는데 이야기 중에 또 그 순간이 오고야 만 것이다. 친구가 "너 큰 애는 이제 고등학생인가?" 하는데 "아... 몰랐구나. 사실 우리 아이 재작년에 하늘로 갔어." 라고 대답하며 5초간 침묵. 같이 온 다른 친구가 소식을 전했겠지 싶었는데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지혜로운 친구였기에 자연스럽게 다음 대화를 이어나갔고 눈물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태는 막았지만 그래도 분명 친구가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아이는 넷이고 큰 아이는 유학 갔습니다." 하고 끝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하지만 그러면 또 묻겠지? 어머~ 유학은 어디로 갔어요? 미국이요? 호주요? 요즘은 뉴질랜드도 많이 가던데... 아... 실은 좀 멀리 하늘로 갔습니다. 그러면 역시 되돌이킬 수 없는 분위기가 되겠지? 대답해야 하는 나보다도 물어본 사람이 더 어쩔 줄 몰라할 것이 눈에 훤하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해진 공식 코드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별은 A16, 이혼은 A21, 자녀 잃은 부모는 B1 같은 코드를 밝히면 더 이상 질문하거나 답변하지 않아도 되는.....

일곱 살 셋째 딸을 하늘로 보내고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이 알려진 분이 말했다. 유명해지고 나니 좋은 점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녀의 수나 나이를 말하며 난감할 일이 확 줄어서 편해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갔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자식 잃은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차라리 편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다.

딸에게 물었다. "상담 선생님께 네가 뭐라고 했길래 선생님이 오빠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했니?"

딸이 대답했다. "오빠 중3이라고 했더니..." 그리고 딸이 이렇게 말을 잇는다. "오빤 천국에서 중3 다니고 있을 테니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 그치?" 하고 웃으며 말하는데 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딸아이의 믿음이 확고해서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눈물을 참는 데는 실패했다. 중1에 하늘로 떠난 오빠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잊고 싶지 않았다며 "오빠는 중3" 이라고 말하는 우리 딸이 가엽고 중3이 되어 본 적 없는 우리 아들이 그리워서 한참을 숨죽여 울었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 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REDPOINT REALTY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 지금이 집을 파실 기회입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08 후불제 페인트 Paint(pay when close escrow)

최근 판매한 매물들 —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780 W Rosslynn AVE FUL	$950,000	3110 Cochise WAY #102 Fullerton	$473,000
8062 Ainsworth LN La Palma	$1,350,000	7770 Youngdale WAY #D Stanton	$450,000
5320 Buck Hill AVE Buena Park	$2,000,000	5087 Argyle DR Buena Park	$500,000
11762 Lakeland RD Norwalk	$740,000	1001 W Lambert RD #169 La Habra	$210,000
120 Gemstone Irvine	$1,385,000	629 Drake AVE Fullerton	$893,000
11433 Excelsior DR #A NorWalK	$600,000	6045 Barry DR Cypress	$960,000
5409 Arrowhead AVE Buena Park	$900,000	3143 W Lincoln AVE Anaheim	$659,000
988 Glendora Dr. Oceanside 92057	$825,000	596 Escenico Lake Forest	$1,085,00
1661 Interlachen M11-286B Seal Beach	$265,000	2615 Tuscany WAY Fullerton	$1,607,000
4559 Toledo WAY Buena Park	$581,000	6495 Saipan ST Cypress	$1,002,540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